

월드컵과 화장실 — 경기장내 화장실 실태에 관하여



글 조의현(산업연구원장)

화장실과 월드컵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화장실은 켈래야 켈 수 없는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화장실 분야는 독자적인 발전보다는 많은 국제행사의 개최와 더불어 획기적인 변화를 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근한 예로 '86~'88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계기로 한 단계 점프(?)를 했는가 하면, 근래에 들어 지난해의 ASEM회의, 금년의 한국 방문의 해 설정으로 더욱 화장실 깨끗이 하기 운동은 힘을 얻어 급기야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정점으로 하여 민·관이 합심이 되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느낌이다. 먹는 문제 이상으로 배설의 문제가 중시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에서, 화장실 분야는 문화가 숨쉬는 휴식의 공간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개발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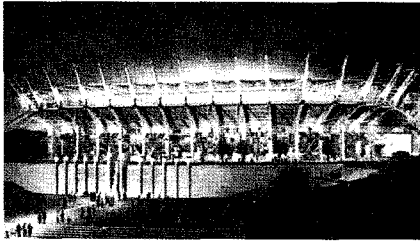
월드컵 경기장 내의 화장실 실태

어찌되었건 월드컵을 정점으로 하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화장실인데, 그렇다면 월드컵 경기장 내의 화장실 사정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월드컵 경기장 수는 10개 소로 총 수용 인원은 489,994석이며, 설치되어 있는 변기 개수는 남·여 대변기 및 소변기를 합하여 8,458개로 약58명당 1개꼴로 설치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바 수원은 44명당, 그리고 울산은 74명당 1개꼴로 준비되어 있다. 남·여 대변기의 비율은 44 : 56으로 대변기만의 비율은 여성이 많은 편이나, 전체 변기 수 (남 대변기 + 소변기 : 여 대변기)비율은 71 : 29로 남성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편이다. 상기와 같은 비율은 건축법규, 월드컵 경기장에 입장하는 남·여의 예상비율, 그리고 외국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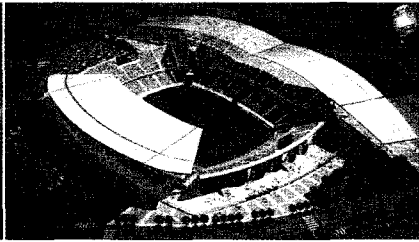
월드컵 경기장 화장실 실태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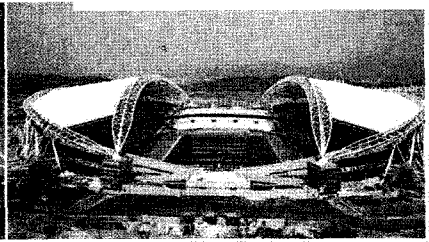
명칭	수용규모 (석)	화장실개수				전체변기수					대변기실태						비고
		남	여	다목적	계	대변기		소변기	총변기수	좌변기			외변기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64,677	96	88	153	184	265	310	545	680	1,255 (51.5명)	266	310	575	-	-	-	1인용 다목적 화장실이 많음
대구	65,857	58	48	4	106	256	185	441	646	1,087 (60.5명)	256	185	441	-	-	-	
광주	42,880	52	32	4	84	131	171	302	381	683 (62.7명)	131	171	301	-	-	-	사정수는 중수 이용
대전	40,407	48	55	22	103	164	238	402	263	665 (60.7명)	164	238	402	-	-	-	
전주	42,477	44	22	24	66	174	323	497	247	744 (57.1명)	174	323	497	-	-	-	
울산	43,152	40	34	20	74	120	208	328	254	582 (74.7명)	120	208	328	6	6	12	외변기는 간이 화장실
인천	50,256	73	58	20	131	222	301	523	417	940 (53.5명)	222	301	523	-	-	-	
서귀포	42,256	42	37	18	79	129	212	341	345	686 (61.8명)	129	212	341	-	-	-	
부산	54,534	37	32	9	78	170	324	494	338	832 (65.5명)	170	324	494	-	-	-	
수원	43,138	73	48	30	151	293	193	486	498	984 (43.8명)	293	193	486	-	-	-	남화장실10개소 여자용으로 전환가능
계	489,994	563	454	304	1,056	1,924	2,465	4,389	4,069	8,458	1,924	2,465	4,389	6	6	12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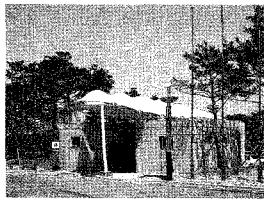


▲수원 월드컵 경기장



▲대구 종합경기장

등이 감안되어 책정이 된 것이기는 하겠지만,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중 공중화장실 남·여 대변기 비율 (3 : 8)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이며, 근래에 들어 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관련 통합법안 (남·여 변기 비율 1 : 1)에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 특징을 살린 경우도 많이 눈에 띄었다. 서울의 상암 월드컵구장은 1인용 다목적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고, 광주는 화장실 세정수를 인근 수영장에서 사용한 중수(重水)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경우는 남자화장실 10개소를 행사 성격에 따라 여자용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하였고, 대구와 울산에는 운동장 외부에도 화장실을 설치하여 약속을 하고 기다리거나 매표를 하면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수원의 경우도 최근 들어 계획을 하고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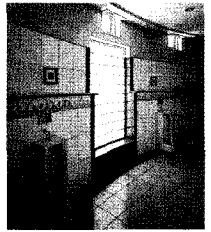
▲대구 종합경기장 외부의 화장실

인 것은 전 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남·여 대변기 모두가 100% 좌변기(양식변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단지 울산의 경우 외부에 설치된 예비간이 화장실에 남·여 각 6개 합계 12개만이 좌변기(동양식변기)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동시에 월드컵 행사를 치루기로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좌변기 비율 50~6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이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월드컵 경기장 수도 우리와 같이 10개소이고, 수용인원 또한 495,968석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화장실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 이기는 하나 결승전이 열리기로 되어있는 요코하마 구장은 총 70,564석 수용규모에 화장실 부스는 (대변기 기준) 남 362, 여 366, 합계 728개로 되어 있으며, 이곳도 남·여 사이를 가동식 벽으로 설치하여 각각의 행사에 따라 달라지는 남·여 비율에 유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홋카이도에 위치한 삿포로 구장은 41,000석 규모의 돐 구장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야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변기 수는 대변기 남 151, 여 247, 합계 39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자 소변기는 324개이며, 대변기의 경우 좌변기 223개로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 화장실도 2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만 아직 생소한 오스토메이트(인공항문, 인공방광 장착 자)를 위한 운수 샤워기 설



▲수원 월드컵 경기장내 화장실



▲오스토메이트우선 화장실 표시